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석 직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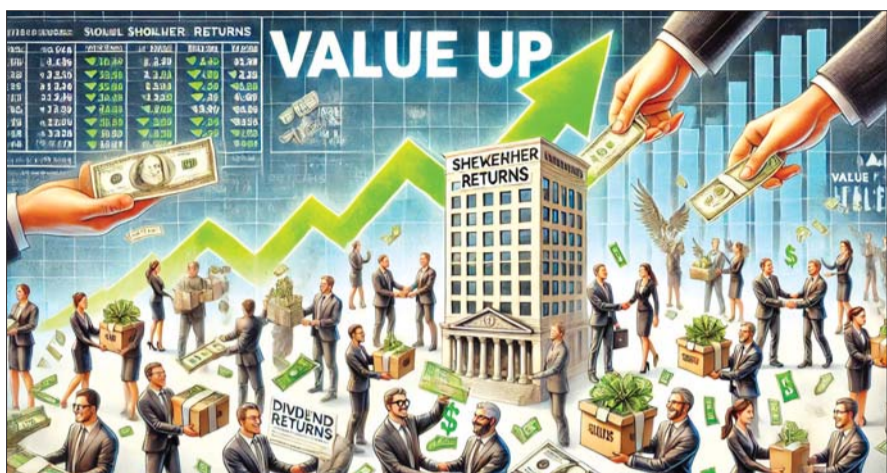
기업 CEO, 주주환원 흐름 편승 ‘분주’... 자사주 매입 실천

배당금 지급방식 차별화 위해 TR·PR형, 2개 옵션으로 나눠어 삼성전자·네이버, 자사주 매입 나서 주가 부양에도 상승세 부진 사례

추석 직후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 기업들의 주주환원 흐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의 자기 주식 매입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노력에도 주가 상승 흐름은 미미한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27일 중에 발표된다. 이후 이달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배당금 지급 방식 차별화를 통해 2개 옵션으로 나뉜 ‘KRX코리아밸류업지수’와 ‘KRX코리아밸류업TR지수’가 동시에 공개된다.

분배금 지급 방식에 따라 TR(Total Return)과 PR(Price Return)로 나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에 동참하는 상장사’ 이미지.

게 된다. PR형은 투자 수익 분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TR형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구사한다.

앞서 진행된 밸류업 자문단 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에 대한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필요성이 논의됐던 만큼 기업들도 주주환원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막바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EO들이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치며 자기 주식 매입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3억4750만원어치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에 사들인 5000주까지 약 7억150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희 부회장이 지난 5일 1만주(약 7억3900만원), 전영현 부회장이 5000주(약 3억76000만원)에 사들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방어와 투자자 안심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정부가 이달 내 향후 유망 기업들을 추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9일 주당 16만원에 자사주 1244주를 매입했다. 이는 약 5억원 규모로, 최 대표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5718주가 된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가 자사주 440주를 주당 22만1000원에 사들였으며,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달에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1억273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CEO들의 자기 주식 매입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CEO와 임원진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후진하며 11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

다. 다만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금 확대 등으로는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는 없다”며 “테슬라, 아마존 등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고, 이러한 자금을 미래가치에 투자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 내부 자금이 부족할 때, 구조조정 등으로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날 로이더통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 감원하도록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 기초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부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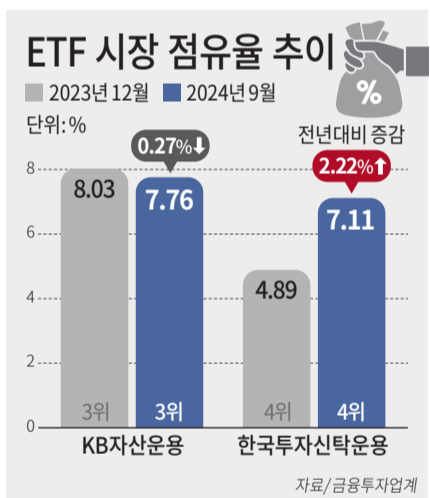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KB자산운용, 인도시장 타깃 ETF 경쟁 ‘활활’

한투운용, 가전 등 자용소비재 업종과 인도 상위 5대 그룹주 계열사 투자 KB자산운용, 인도 니프티50 지수 추종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 증시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이 각자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운용은 지난 10일 인도 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와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를



상장했다. 전자는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등 자용소비재 업종 15개 기업에 투자하고, 후자는 인도 상위 5대 그룹인 타타, 릴

라이언스, 아다니, L&T, 바자즈 그룹주와 계열사에 투자한다.

해당 ETF의 설계를 주도한 현동식 한투운용 해외비즈니스본부장은 상장 당일 “내 자산을 직접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인도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자사 ETF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니프티50과 같은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은 많았지만,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아직 없었다”며 한투운용 인도 ETF만의 특징을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2010년부터 12년간 중국 상하이 사무소장을 지내며 중국 시장의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이웃국가이자 ‘넥스트 차이나’로 불

리는 인도를 직접 오가며 ‘액티브 ETF’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운용역 역량이 더 가미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B자산운용은 인도 니프티(Nifty)50 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인도 Nifty50 인덱스펀드’를 지난 9일 출시했다. 니프티50 지수는 인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인도 내에서 가장 큰 50개의 대형 상장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는 인도의 경제 전반과 주식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로 여겨진다.

KB자산운용의 인도 ETF는 ‘패시

브’형이다. 지수를 그대로 따른다는 특징이 있어 더 적은 수수료로 ETF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도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자산운용사는 각기 특성을 가진 ETF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으며 ETF 시장 중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나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ETF 시장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3위(7.76%), 한투운용이 4위(7.11%)로 그 격차가 크지 않다. 한투운용이 전년 대비 2.22%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KB자산운용은 전년 대비 0.27% 점유율이 하락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위·4위 회사가 ETF 시장 점유율 1위(삼성자산운용)·2위(미래에셋자산운용)를 따라잡기는 버거운 보이지만, 중위권 쟁탈전은 상위권 쟁탈전보다 더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어급 기업 상장 시동... 증권사, IPO 주관 순위 ‘지각변동’

KB증권, 1위 → 4위로 밀려나 미래에셋증권, 4928억 ‘1위’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IPO)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증권사들의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IPO 주관 순위가 변동이 일어났다. 상반기 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에 힘입어 1위에 이름을 올렸던 KB증권(3105억원)이 하반기 들어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상반기 961억원의 주관 실적으로 부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이 7~8월 코스피 상장사 산일전기와 전진건설로봇 등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에서 뱅크웨어글로벌을 대표 주관하며 총 4928억원을 기록,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기 2위와 3위에 자리했던 한국투자증권(3792억원)과 NH투자증권(3328억원)은 시프트업을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 케이뱅크, 더본코리아, MNC솔루션 등 대어급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을 연달아 준비하고 있어 증권사 간 순위 바뀔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공모 희망가액은 9500~1만2000원이다. 공모 규모만 최대 984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3조9586억~5조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대표 주관사 중 국내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이다.

더본코리아는 1994년 1월 설립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 2만3000~2만8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4050억원 수준이다. 상장 주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았다.

MNC솔루션은 방산부품기업으로, 역시 1조원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B증권이 단독으로 대표 주관 맡았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와 MNC솔루션의 주관 맡은 KB증권이 다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은 이들 외에도 발해인프라투자회사 등의 주관 맡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比 16% 늘어”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769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손해보험, 중소기업민 권역의 민원이 늘었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민원 분야는 은행민원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5594건) 늘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으로 펀드 관련 민원이 작

년 74건에서 올해 3918건으로 증가했으며,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대로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56건) 감소했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늘었다. 증권사 민원은 2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9건) 감소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 유형이 크게 줄었지만 주식매매,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유형은 증가했다. 투자자문사 민원도 6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219건) 줄었다. /허정윤 기자